광주교통공사, 도시철도 이용 안전·눈 건강 살핀다

신세계안과와 함께 양동시장역서 '무료 안과 검진'

도시철도 이용객·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질환 검진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공사는 11일 양동시장역에서 도시철도 이용객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안과 전문 의료기관인 신세계안과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시력 측정을 비롯해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등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안질환에 대한 검진 및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양동시장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역사 이용 편의 증진 및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1일 개통한 양동시장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동선과 시설 위치를 안내하고, 고령자와 교통약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도시철도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확산에도 나섰다. 공사는 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 배려와 도시철도 내 음식물 섭취 자제, 질서 있는 승·하차 등 모두가 실천해야 할 기본 이용 예절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봉사와 함께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과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통공사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의료봉사, 농촌 일손돕기,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는 11일 신세계안과와 협력해 양동시장역에서 도시철도 이용객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어촌공사-광주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김치 나눔'

임직원들 김치 2000kg 담가

보훈대상자·복지시설 전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장숙남)과 함께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보훈대상자와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김치 2000kg을 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은 이날 김치 담그기 봉사에 참여하며 보훈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광주·전라 지역 보훈대상자와 나주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영호 부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숙남 청장은 "보훈 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가유공자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한국농어촌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산막동의 한 농가를 찾아 '국민과 같이(價値) 행복농촌봉사단'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광산구 산막동 농가 찾아 딸기 하우스 정비 지원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산막동의 한 농가를 찾아 '국민과 같이(價値) 행복농촌봉사단'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농협 광주본부를 비롯해 NH농협은행 광주본부,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N돌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모여 시설하우스 내 재배를 마친 노후 딸기 모종을 제거하고 멀칭 비닐을 수거하는 등 다음 작기 준비를 위한 정리 작업을 도왔다. 특히 수확 이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설하우스 정비 작업에 힘을 보태며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수확기 이후 시설하우스 정리 작업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고된 과정"이라며 "봉사단의 작은 도움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영농 시기별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광주본부가 운영하는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지역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도농상생 가치 실현을 목표로 릴레이 일손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이 '제37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양궁팀

광주시청,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금빛 시위'

이가영, 70m서 338점으로 정상·여자 단체전 은 추가

권나래 컴파운드 2위…순천시청 유시현, 개인전 우승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이 '제37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에서 금빛 시위를 쐈다.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이가영은 최근 충북 옥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거리별 경기 70m에서 338점을 쏴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임시현(현대모비스), 홍수남(인천시청), 방현주(현대모비스)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가영은 김세연, 나민지, 정지서와 팀을 이룬 여자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시청은 결승에서 인천시청에 세트스코어 4-5로 패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6강에서 창원시청을 5-1로 꺾은 뒤 8강에서는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을 6-0으로 완파했다. 이어 4강에서는 예천군청과 접전을 펼친 끝에 5-4 승리를 거두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 비록 정상 문턱에서 인천시청에 석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권나래가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 광주시청의 메달 행진에 힘을 보탰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청 유시현이 빛났다.

유시현은 여자 개인전 64강에서 전완서(여주시청)를 7-1로 꺾은 것을 시작으로 32강 심다정(예천군청)을 6-0, 16강 방현주(현대모비스)를 6-4로 제압했다. 이어 8강에서는 장민희(인천시청)를 7-3으로 물리쳤고, 4강에서도 전인아(전북도청)를 6-2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기세를 이어간 유시현은 결승에서 조민서(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펼쳤다. 세트스코어 6-0 완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한 유시현은 이번 대회 여자 개인전 챔피언에 오르며 실업 무대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강호 교수

박인규 교수

정용연 교수

뇌졸중 후유증 최소화 '스마트 나노치료기술' 개발

전남대병원, 최강호·박인규·정용연 교수팀 공동연구

전남대학교병원은 본원 최강호 교수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박인규·정용연 교수 연구팀이 뇌졸중 발생 시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밀 나노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매티리얼즈 투데이 바이오(Materials Today Bio)'에 게재됐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소개됐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막힌 혈류가 다시 통하는 재관류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ROS)가 생성돼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치명적인 2차 손상을 유발한다.

기존 치료제는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벽인 뇌혈관 장벽(BBB)에 가로막혀 손상된 뇌 조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활성산소에 선택적으로 반응해 분해되는 '티오케탈(Thioketal)' 기반의 나노전달체(PTC)를 독창적으로 설계했다. 해당 전달체에 뇌 보호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물(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을 탑재해 활성산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뇌 허혈 부위에 정밀하게 표적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 나노전달체(PTC-statin)의 가장 큰 혁신성은 '이중 작용(Dual-functional)' 메커니즘에 있다. 이 나노전달체는 허혈 손상이 발생한 뇌 부위의 뇌혈관 장벽을 원활하게 투과해 표적 부위에 약물을 방출함과 동시에,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생성 자체를 억제하여 허혈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반응성 나노전달체 플랫폼은 뇌졸중 치료의 오랜 과제였던 뇌혈관 장벽 투과 한계를 극복하고, 허혈성 뇌병변 부위에 약물을 표적 전달함과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제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며 "향후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물론, 활성산소가 관여하는 다양한 난치성 뇌질 환의 정밀 맞춤 치료 시대를 앞당길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인 ㈜EG테크가 나눔실천의 하나로 성금 900만원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사진제공=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광양 ㈜EG테크, 임직원들 뜻모아 이웃사랑 실천

저소득·취약계층 900만원 전달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인 ㈜EG테크가 나눔실천의 하나로 성금 9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EG테크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됐다.

복지재단은 성금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학생 3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석 EG테크 사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귀한 정성이 지역 청소년들의 차가운 현실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민석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처장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직원들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기탁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